

제60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8월 29일)

국보 제86호 경천사십층석탑의 보존과 복원

성명 | 조연태 1층 역사의 길 | 18:00~18:30

- 연대: 1348년(고려 충목왕 4년)
- 소재지: 경기도京畿道 개풍군豐德郡 광덕면光德面 중연리中蓮里 부소산扶蘇山 경천사에 건립
- 1902년 일본 미술사학자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에 의해 조사
- 1907년 2월 4일 일본 궁내 대신 다나카 미쓰아키[田中光顯]에 의해 무단 반출하여 1918년 11월 15일 우리나라로 반환.
- 반환된 경천사십층석탑은 무분별한 해체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으로 조립되지 못하고 경북궁 회랑으로 옮겨져 보관되어, 1919년 6월 11일 국립박물관에 귀속.
- 이후 1959년에 시작하여 1960년 수리 복원을 완료한 후, 경북궁 전통공예관 앞에 세워져 다시 세상에 공개되었고,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 86호로 지정되었음.
- 수리 복원된 경천사십층석탑은 시멘트 모르타르가 점차 풍화되어 부재 탈락이 빈번하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정밀보존처리가 요구되어 1995년 4월 20일 석탑 해체를 시작으로 2005년 10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1층 역사의 길에 조립 복원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현재 전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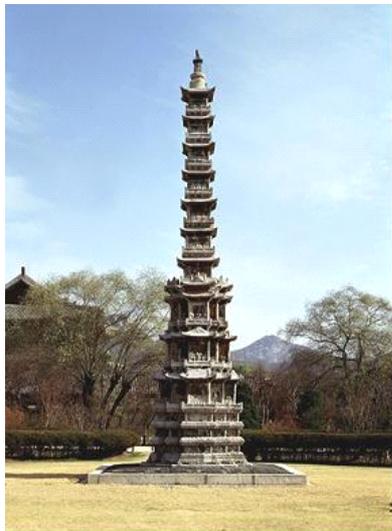


그림1. 경북궁 전통공예관



그림2.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길

시간을 담아낸 조선의 지도

장상훈 | 특별전시실 및 중근세관 114호 | 18:00~18:30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많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간은 시간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간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는 매체인 지도에는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리학에는 역사를 기록하는 전통이 면면히 이어졌고, 그중에서도 조선의 지도에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17세기의 유학자이자 관리였던 김수홍(1601~1681)이 제작한 지도들은 이러한 흐름을 대표합니다. 당시의 세계관을 담은 세계지도인 <천하고금대총편람도>나 전국지도인 <조선팔도고금총람도>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 지도들은 과거와 현재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역사지도에 비견될 수 있는 이 지도들은 당시의 유교적 세계관 속에서 의미 있는 인물과 사건들을 지역별로 상세히 보여줍니다. 특히 <조선팔도고금총람도>에는 학문적인 성취를 이룬 성리학자를 비롯하여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충신, 효자, 열녀 등을 열거함으로써, 유교적인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역사 이야기를 공간 위에 풀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에 수록된 지리 공간 위에 역사 정보를 덧붙이거나, 역대 왕조의 변천을 정리하여 실는 것은 조선 후기 지도의 중요한 특성이 되었습니다.



그림 1. <조선팔도고금총람도>
김수홍 (1601~1681)
조선, 1673년 (현종 14)
종이에 목판 인쇄, 107.0×141.8cm, 낱장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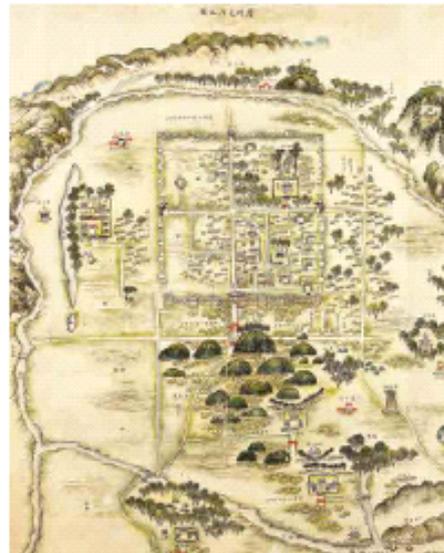


그림 2. <경주읍내전도>
조선, 19세기 말
종이에 먹과 색, 70.5×56.0cm, 첩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태극기의 역사

이기현 | 120호 대한제국실 | 19:00~19:30

19세기 후반,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는 국기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882년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계기로 처음으로 국기를 사용했습니다. 최근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국 워싱턴 국회도서관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태극기 도안을 발견했습니다.¹⁾ 고종은 1883년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하였으나, 국기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고종의 외교 고문이었던 데니(Owen N. Denny)가 소장했던 태극기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사용했던 태극기 등 광복 이전의 태극기를 보면 태극의 문양과 괘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태극기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자주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도 태극기는 우리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1900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는 경복궁 근정전을 본뜬 전시관을 세우고 태극기를 날리며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은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자주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의병장 고헌순은 태극기에 ‘불원복不遠復(조국의 국권을 곧 회복할 것이다)’이라는 글자를 써서 조국의 국권 회복을 기원했고,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한인애국단 입단 기념 촬영에도 태극기는 광복을 향한 염원의 상징으로 함께 했습니다.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태극기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 태극기를 국기로 승계했고, 1949년 10월 15일, 오늘날의 태극기가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 도안



고종이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1890년경)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사용한 태극기(1923)



현재의 태극기

1) <미국에서 찾아낸 최초 태극기 도안>, 조선일보, 2018. 8. 14.

특별전<황금문명 엘도라도>(3)

오세은 | 기획전시실 | 19:00~19:30

남아메리카의 고대문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하고 매혹적인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 중에 하나인 엘도라도 역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신비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축복받은 땅 안데스는 일찍부터 황금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문명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엘도라도의 황금유물은 섬세한 조각과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원주민이 숭배하는 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엘도라도는 스페인 침략자들의 탐욕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철저히 숨었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다시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었습니다.

1969년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파스카 마을의 산 속에서 두 농부가 개를 찾으려다가 험준한 바위 밑에서 작은 동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를 지닌 사람모양 토기단지 안에 순금으로 만든 조그만 뗏목모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뗏목 모형은 바로 무이스카 원주민이 의식을 치루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과타비타 호수는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뗏목은 당시 무이스카 원주민이 금공예품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한 밀납주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길이 19.5cm, 폭 10.1cm, 높이 10.2cm로 작은 편이지만 그 형태가 매우 정교합니다. 뗏목 자체는 잘 구부러지는 나무의 몸통이나 갈대의 한 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평평한 타원형을 만들기 위해 구부린 후 끝을 묶었습니다. 족장으로 추정되는 중앙의 인물은 머리장식과 귀걸이, 코걸이를 착용한 채 다른 사제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 두 명은 『서인도제도의 자연사와 역사』에 기록 그대로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뗏목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족장이 서 있고, 노잡이 여덟 명이



무이스카뗏목

등을 돌려 족장을 에워싸고 노를 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황금뗏목의 발견으로 고고학자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찾았던 ‘엘도라도’가 바로 이곳이라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이 뗏목은 당시 당시 파스카 교구 사제인 하이메 힌카피에(Jaime Hincapié) 신부의 노력으로 현재 황금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